

2018년 5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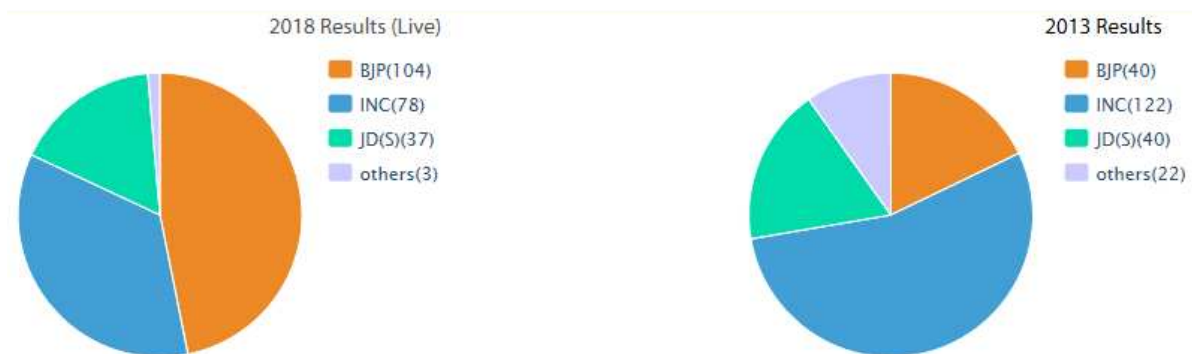
emerics@kiep.go.kr

인도 카르나타카 주의회선거 결과와 평가



- 2018년 5월 12일 실시된 카르나타카(Karnataka)주의 선거 결과 모디 총리가 속한 연방 여당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이하 BJP)이 최다 득표로 승리함.
- 투표 결과에 따르면, 카르나타카주 집권당이자 연방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 이하 INC)가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대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BJP가 의석 224석 중 104석을 확보하며 제1당을 차지함(투표율 72.36%).¹
 - 이는 종전보다 64석이나 더 많은 것으로 기존에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INC는 78석에 그치며 2위, 지역정당 자나타달-세쿨러(JDS: Janata Dal-Secular)가 38석으로 3위를 차지함.
 - 인구 6,100만 명으로 인도 29개주 가운데 인구수가 여덟 번째로 많은 카르나타카주는 연방 하원 543석 중 28석, 상원 245석 중 12석이 배정되어 정치적 중요성이 높음.²

그림 1. 카르나타카 주의회선거 결과



자료: Elections.in (검색일: 2018.5.17.)

1) INC는 1885년 창당하여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한 정당으로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고수하는 반면,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는 힌두교 기반으로 1980년 창당하여 경제자유화를 추구함. 이번 선거는 224석 중 222석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으며 벵갈루루 지역의 두 개 석에 대한 투표는 부정부패 의혹으로 5월 28일로 연기됨.

2) 하원 의원은 주별 인구에 비례한 할당제 아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상원의원은 인구 규모에 따라 주 의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됨. 주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주총리와 주장관 등 내각을 구성하며, 각 주의회는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짐.

-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BJP를 중심으로 연합정당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는 29개 주 가운데 21개 주를 장악하게 됨.

□ 최근 구자라트주 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BJP에 있어서 이번 선거는 모디 정부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됨.

- 2017년 12월 치른 구자라트 주의회선거에서 BJP가 182석 중 절반을 겨우 넘긴 99석을 확보하는데 그치면서 모디 총리의 연임 실패 가능성이 제기되었음.³
 - 모디 총리가 주총리를 역임한 정치적 고향이자 1995년 이래 BJP가 장기 집권해 온 구자라트주 선거는 현 정권의 연임 가능성을 가늠할 기회였음.
- 카르나타카주에서의 승리는 이러한 우려를 잠식시키고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인도 남부 지역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는 기회로 작용함.
 - INC 입장에서 카르나타카는 집권지역 4개 주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주(州)로 정치적 중요성이 높아, 지난 두 달간 모디 총리와 라홀 간디 INC총재가 총력전을 펼칠 만큼 중요한 주의회선거구로 부상했음.

□ 이처럼 비교적 열세였던 지역에서 선거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디 정부의 2019년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개혁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앞서 BJP는 최다인구(2억 명)를 보유하고 있는 우타르프라데시주 선거에서 403석 중 312석을 확보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으며,⁴ 올해 2월에 있었던 동북지방 3개 주의회선거에서도 약진했음.⁵
- 일련의 선거결과는 경제성장과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NDTV는 이번 선거 결과가 모디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세라는 우려를 불식시켰으며 내년 총선에서도 야당에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함.⁶
- 더불어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소속된 종파나 카스트에 대한 맹목적 지지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모디노믹스의 성공여부가 크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인도는 2019년 1월까지 4개의 주의회선거를 남겨놓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마디아프라데시주와 라자스탄주는 연방하원 의석수가 각각 29석, 25석 배정되어 있어 양대 정당 간 대결에 귀추가 주목됨.⁷ **EMERiCs**

참고자료

Elections in India , Economic Times, NDTV, New Indian Express 등

(작성: 윤지현 연구원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3) 2012년 선거와 비교하여 BJP는 115→99석, INC는 61→77석을 확보하며 양당 간 격차가 크게 좁혀짐.

4) 연방하원 543석 가운데 80명이 선출되는 우타르프라데시주는 총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큼.

5) 트리푸라주에서는 25년간 주의회를 장악했던 마르크스주의 인도공산당(CPM)을 제치고 60석 가운데 36석 차지하며 압승했으며, 나갈랜드주에서도 연정지역정당들과 함께 과반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함.

6) NDTV(2018.5.15.), 'Karnataka Win Gives BJP Momentum for 2019: Foreign Media'

(<https://www.ndtv.com/india-news/karnataka-win-gives-bjp-momentum-for-2019-foreign-media-1852296>, 검색일: 2018.5.17.)

7) 현재 INC가 집권하고 있는 미조람주(인구 100만 명)와 BJP가 집권하고 있는 차티스가르주(2,800만 명), 마디아프라데시주(7,200만 명), 라자스탄주(7,400만 명)의 주의회선거가 남아있음.